

기금에 손대지 말라 !

글 장 영 주

미래를 짓밟지 말자

나는 “기금에 손대지 말라”고 세 번째로 경고한다.

첫 번째는 1995년에 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천요트경기장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나는 그 자리에 초청강사로 참석했다. 토론 중에 이아무개 감사가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을 쓰자는 제안을 하기에 나는 즉석에서 “앞으로 누구든 어떤 명목으로든 기금에 손을 대는 자는 요트의 역적으로 여기겠다”고 경고했다.

그렇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에서는 경기단체들의 재정적 자립을 꾀하기 위해 1994년부터 재정자립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막 움이 트려는 기금의 싹을 자르겠다는 그의 발상은 싹수없는 제안이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는 2001년에 “기금에 손대지 말라”는 제목으로 협회 누리집에 경고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사명 의식이 없는 사이버 요트인들의 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두 번의 경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예로부터 농부는 흉년이 들어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배고픔 속에서도 씨앗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씨앗은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의 기금은 미래를 꾀한 씨돈이다. 씨돈에서 돈은 싹을 잘라먹는 행위는 미래를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침묵하는 구성원 대다수를 분노하게 했고 미래를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의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미래를 짓밟았다 왜 기금에 손을 대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길지만 토막을 낼 수 없는 것이기에 그대로 실는다.

이 글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이사, 대의원들과 함께 읽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규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단체들은 어떻게 운영하여 왔을까?

비영리 경기단체는 뜻(사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단체는 구성원들의 뜻을 모은 설립 목적에 따라 꾸준히 발전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단체의 참모습이다. 사업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뜻이 있는 자는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자는 뜻이 없다”는 말이 시사하듯 경기 발전에 뜻을 둔 대다수의 경기인들은 돈이 없다 그러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단체는 사업 자금을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경기단체들은 공여지책으로 기업인이나 재력가에게 은밀히 접촉하여 회장으로 영입함으로써 그의 출연금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것은 모든 단체에 적용되는 일도 아니었다. 일부 인기 종목의 단체는 회장직에 서로 앉으려고 다투기도 하지만 비인기 종목의 단체들은 남의 일로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러구러 대부분의 경기단체들은 활력을 잃은 채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에도 힘이 버거웠다.

한편, 정부는 체육 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경기단체들의 육성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예산만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고민은 깊어 갔다.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나서서 특정 기업에 경기단체를 지명하여 운영을 떠맡기기도 했다. 또 일부 기업인은 약삭빠르게 정권에 잘 보이려고 자진해서 경기단체의 운영을 맡기도 했다. 이름을 알리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이 회장직을 꿰차고 기업들에 손을 내밀어 운영비를 조달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비인기 종목의 단체들은 운영비를 출연할 회장을 영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단체들은 회장의 궤위 기간이 길어지자 자금난에 시달리다 못해 기금을 소진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 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무도 자기의 존재를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자리(특히 비영리 공익단체)가 곧 명예라는 등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사실 명예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경기단체들은 기업인들을 알음 알음으로 찾아 나서서 회장으로 추대하여 영입해 왔다. 이것은 뜻과 돈의 물리적 결합일 뿐 경기단체를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현상 유지를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뜻과 돈의 물리적 결합으로는 미래가 없다

뜻은 자존심이 강하고 돈은 지배력이 강한 속성을 지녔다. 지배력은 곧 권력이다. 뜻과 돈의 물리적 결합은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것과 같아서 화학적 융합을 이룰 수 없으므로 걸돌기 마련이다. 이질적인 두 세력은 부딪치기 쉽다. 이로 인한 갈등은 불협화음을 낳는다. 뜻과 돈의 갈등은 결국 경기단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의 뜻은 돈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기 일수다. 경기단체들에는 일정한 생업이 없이 단체에 생계를 기대는 속칭 생계형 임원이 적지 않다. 비영리 단체의 임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가 하면 사리(私利)를 챙길 목적으로 패거리를 지어 불법과 비리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기도 했다. 오래 전의 일이다. 나는 어느 경기단체의 회장(작고)을 만났더니 “제발 주는 돈으로 싹박질이나 하지 않고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한두 단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의 모든 경기단체에 만연된 고질병이었다. 급기야 문체부에서는 이를 척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내부자의 고발(신고) 없이 비리 척결은 불가능한 일이다. 끼리끼리 문화에서 내부 고발은 반대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이들은 단체의 주도권을 쥐고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반대 세력은 비리 내용을 할 수가 없다.

경기단체들의 발전이 더딘 원인은 뜻을 빙자한 사이비 경기인들의 발호가 큰 몫을 한 것이다. 이러한 끼리끼리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동일 대학 출신의 임원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리(私利)에 밝은 자들의 결합은 친분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일정 비율의 외부 임원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 또한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런지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그 견제 수단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나 오늘날까지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의제는 겨우 0.39%에 지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일전에 있었다. 사외이사의 선임은 그 기업 총수의 뜻에 달렸는데 사외이사들이 그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기단체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 단체의 정관에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장이 추천하여 선출된 외부이사가 회

장의 뜻에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그들은 요트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은가? 회장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외부이사는 사명감이 없으므로 견제 세력이 될 수 없다.

이래 저래 경기단체들은 돈의 지배력과 뜻을 굽힌 자들의 부패가 만연한 고리를 끊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또 다시 회장 선출 방식에 손을 댔다. 지금까지 기업인을 특정하여 회장으로 영입하는 추대방식의 단독 후보 선출을 탈피하여 단체는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입후보자를 등록하게 하여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형식상의 민주적 경선 방식을 시행하도록 제도화했다. 대부분의 비인기 종목 단체들은 특정 기업인을 꽃가마에 태워 회장으로 모시기도 어려운 판에 그 종목에 애정을 가진 것도 아닌 기업인들이 무엇을 위해 입후보하겠는가?

이것은 탁상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형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앞에서 살핀 대로 경기인들은 대체로 돈이 없다. 회장에 입후보하는 이들은 결국 돈을 가진 기업인들일 터인데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경기단체의 회장에 마치 어떤 물건을 경매에 부치듯 출연금의 다과에 따라 선출될 수밖에 없는 경선에 입후보하겠는가?

그렇다면 뜻과 돈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뜻과 돈의 화학적 융합은 가능한가?

우리 단체의 역사는 짧지만 위에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회장이 고루 거쳐 갔다. 정부 지명형, 정권 아부형, 명예 추구형 그리고 심지어 다른 단체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지 회장까지 등장한 끝에 정부 방침에 따른 경선 회장을 맞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단체는 앞으로 발전을 향해 치달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전히 단체의 설립 목적은 정관에만 남아 있을 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뜻과 돈의 물리적 결합이 빚어낸 패착이었다. 이상적인 경기단체의 조직 구조는 뜻과 돈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비경기인인 회장의 돈은 뜻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경기인은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다.

비영리 경기단체는 사명감이 발전의 동력이다. 그럼에도 우리 단체의 임원들에게서는 사명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나는 이대로는 단체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해결책을 고심한 끝에 피터 드러커 교수가 쓴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라는

책 36권을 사서 임원들에게 기증하기로 했다. 두 번에 걸쳐 기증할 때마다 책에 붙였던 헌사를 여기에 소개한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제1부 제목이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듯 이 책을 관통한 비영리 단체 경영의 첫째 덕목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비영리 단체의 경영은 사명감이 없는 임원들로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 결과였다.

그 기증으로 효과는 있었는가? 효과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단체가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임원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협회 임원 여러분께

요즘 책방에 들러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에 관한 책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의 경영에 관한 책은 피터 드러커 교수가 지은 <비영리 단체의 경영> 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리 단체는 이윤 창출을 위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구성된 조직이므로 이윤이라는 척도에 따라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인 터라 조직원을 평가하기도 부리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에 반해 비영리 단체는 공익을 위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참여한 사람들의 조직체이므로 그 성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을 부리기도 어렵습니다. 영리 단체는 적자가 누적되면 망하지만 비영리 단체는 성과가 없어도 그대로 존속됩니다. 이로 인하여 조직은 타성에 젖어 개혁이나 인력개편이 어려운 탓에 발전이 더딘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병원, 학교, 교회, 경기단체, 자선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재단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만큼 가장 깨끗한 경영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 단체에서 발전은 고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는가 하면 내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두가 사명 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단체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임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하면서 보내 드립니다.

2011년 9월 일

장 영 주 드림

헌사

우리 협회 임원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단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2011년에 이 책 30권을 사서 모든 임원들과 사무국장에 이르기까지 위의 헌사를 붙여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란 자기가 필요해서 사야지 남이 공짜로 주는 것은 잘 읽게 되지 않는 속성을 지녔나 봅니다. 협회의 실상이 그때보다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임원들은 이 책을 마음으로 읽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책은 참으로 묘한 존재다. 들고만 다녀도 효과를 나타낸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읽은 사람다운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강박증도 일으킨다.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더 어려운 책에 도전하게 되고 나름의 깨달음도 얻게 된다 하니 책은 무조건 가까이할 존재다. 책은 한번 멀어지면 자꾸 멀리 달아나게 된다.” 는 말을 믿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비영리 단체에 몸을 담은 이상, 이 책을 가까이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단체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조직은 위기를 느끼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다.” 고 했는데, 우리 단체 구성원 중 아무도 지금이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허우적댈 때 협조하지 않으면 그는 겁쟁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심기일전하여 발전하는데 여러분이 활력소가 되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책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일

장 영 주 드림

비영리 단체의 경영은 봉사로 이루어진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으로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봉사함으로써 단체가 유지 발전되는 것이다. 봉사는 희생이다. 희생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사명감이다.

희생의 대가는 보람과 성취감이다.

사명감이란 무엇인지 요트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로 한다.

“내가 요트를 부려 보았더니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며 건강에도 유익하더라. 이것을 어찌 나만이 즐길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내가 쌓은 지식과 닦은 기술을 기부하는 봉사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행복해져야지. 이것은 신이 내게 내려 주신 명령이다 라는 느낌(생각)”이 아니겠는가.

비경기인이 경기단체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결코 경기단체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 간 데 돈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여 사명감도 없는데 어찌 마음이 가겠으며 마음이 가지 않는 일에 무엇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겠는가? 자기의 취임 목적에 맞게 자리를 유지할 정도의 운영비만 출연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뜻과 돈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첫째로는 단체 구성원들의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는 조직 구조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구성원들 중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한다. 뜻(사명)과 돈이 하나가 되는 가장 이상적인 운영 방식일 수 있다.

이 방식은 회원수가 수십 만에 이르는 미국을 비롯한 요트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쯤 되면 회비 말고도 관련 기업의 기부금뿐 아니라 관련 물품의 판매 수입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IYRU회장이던 폴 핸더슨은 1995년 임기 말에 모든 세일링 행위를 통합하여 ISAF체제로 바꾸면서 자비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종전에 IYRU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모두 우편으로 회원국에 발송하던 것을 누리집에 올려 경비를 절감했다. 물론 세일링경기규칙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USS회장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폴 핸더슨은 캐나다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웃으면서 세일링경기규칙을 책으로 사서 보지 않고 누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이용하겠냐고 응수해서 한날 헤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다.

USS회장은 왜 그랬을까?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RRS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책으로 발간해 팔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대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책이 팔리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한 권에 20달러를 받는다면 십만 권이면 2백만 달러 이십만 권이면 4백만 달러가 아닌가.

둘째로는 그 종목의 경기인이 회장을 맡아 단체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조직 구조다. 이것은 요트의 중진국형으로 첫째 구조의 전 단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기인 출신이 기업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으므로 역시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셋째로는 재단 형태의 운영 구조다. 일정한 재산(동산과 부동산)을 재단으로 형성하여 그 수입금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일본요트협회도 초기에는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정치인, 기업인의 회장을 거쳐 기금이 형성되자 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지금은 요트인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이상형 조직 구조 중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셋째 방식일 것이다. 정부에서도 고심 끝에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나 구조도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

결국 이 세 가지 구조는 뜻과 돈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돈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들이 사명감(뜻)이 없다면 도로아미타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터 트레커 교수가 지적한 비영리 단체의 경영에서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가 맞는 답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사명감이 없는 자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차떼기로 돈을 갖다 부어도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기 시작했는가?

문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경기단체들의 재정 자립을 통하여 자율적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1994년에 <체육 관련 법인 업무 편람>을 발간하여 각 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체육기금에서 경기단체의 재정자립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것을 씨돈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토대를 마련했다. 또 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으로 법인화를 이룩한 단체에는 10억 원을 법인화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집행부는 행정적 무능으로 10년도 넘게 법인화를 미루기만 했다. 그 편람에는 법인화에 따른 정관을 제정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문체부에서 작성한<기금관리규정>도 함께 의결하여 승인을 받도록 못 박았다. 그리고 그 규정을 개정할 때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이는 곧 기금은 반드시 <기금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라는 강제 조치이다.

우리 단체는 2006년에 이르러서야 법인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10억 원의 법인 화기금도 지급받았다. 왜 법인화가 그 시점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법인이 아니면 단체 명의로 재산을 가질 수 없다. 만일, 임의단체에서 재산을 가지려면 누군가의 개인 명의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단체는 체육회(사단법인) 명의로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되어야 했다.

종전에 지급하던 "재정자립적립지원금"은 "경기력지원비적립금"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급해 왔다. 여기서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지 <기금관리규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기부 포함)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 6, 정관 제5조 제1항의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7, 기타 일반회계결산 잉여금 및 여유 자금.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일정 액수에 이르면 그 기금의 과실금(이자 및 보유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금)만으로도 요트인들이 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상적인 경기단체의 세 번째 조직 구조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정부의 지원금을 적립하여 37억 원의 기금을 적립했다.

기금의 관리 상태는?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나보다 자식, 자식보다 손자가 잘되기를 소망하며 희망을 걸고 힘겹게 살아간다. 단체도 마찬가지다. 늘 미래를 위한 사업을 펼치며 발전을 꾀한다. 오늘날 우리 단체는 매우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럴수록 이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것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설계여야 한다.

그것이 기금이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임원들이라면

정부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1994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금(이자)을 해마다 싹둑 잘라 썼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발전을 위한 특정 사업에 쓰지도 않고 일반 경상비로 지출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단체를 거쳐 간 정부 지명형과 명예 추구형 회장의 자리를 연장시키는데 일조했을 뿐 단체에는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비경기인 회장이 쓰자고 해도 적극 반대해야 할 명색의 요트인이라는 자들이 갖다 바친 것이다. 나는 역대 그들 임원들의 속셈과 행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구업(口業)을 쌓기 싫어 까발리지 않는다. 까발린다고 해서 이미 쓴 돈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기금의 과실금을 사용한 11년 동안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마다의 예산서에서 낱낱이 찾아보아야 알 수 있다. 회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해마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도록 기금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의 기금 사용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금 과실금을 일반회계의 수입금으로 잡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정관에서 총회의 예산 심의권이 삭제되었다. 종래에는 기금의 과실금을 수입금으로 잡아 예산에 편성하여 그에 대한 사용을 형식상 총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총회의 예산 심의권이 없어지자 따로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총액을 문체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715,964,956에 이른다. (이 중 2015에 사용한 ₩84,531,533은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2016년 4월에는 기금의 과실금 ₩41,648,093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때는 문체부에서 우리 단체의 비리를 한창 조사 중이었으므로 기금의 과실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 저지른 범죄다.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의 이행이 미숙한 것은 후진성이다. 그러나 아예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행태는 야만성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단체에는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그 중의 단 한가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야만적이라는 것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의 과실금이랍시고 합법, 불법으로 잘라 쓴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일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복리를 합해 적립된 기금은 50억 원은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 기금을 함부로 쓴 그들에게 미래를 맡겼다니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관심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단체의 주인은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

“축재(蓄財)보다 이재(理財)가 더 어렵다”고 했다. 돈을 벌어 모으기보다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다.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준 돈도 제대로 증식하지 못한 우리 단체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돈을 잘 쓰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2017년부터 기금의 과실금은 일반경상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지침이 문체부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기금의 본디 뜻을 살려 반드시 발전을 위한 특정 사업에 써야 한다. 기금은 미래를 위해 조성한 것이니 그것이 목적에 맞는 것이다.

기금을 써서는 안 되는 이유

새 집행부가 구성된 뒤로 기금과 관련하여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물론 삼식(三食)이인 나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 요지는 기금으로 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기금을 은행에 묻어 두어도 그 과실금은 얼마 되지 않으니 차라리 그 기금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큰 이익을 내자는 것이다. 뜻대로 된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기금 증식에 뜻이 있다면 **먼저 박순호, 박경조 전 회장이 불법으로 쓴 기금 과실금부터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다.** 집토끼 놓치고 산토끼 잡겠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반드시 선한 생각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체제 아래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업을 해도 수익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워 망하기가 일쑤인데, 수익을 내기는 녹록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주어진 돈으로 경기단체의 발전 사업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집행부, 더구나 운영비의 횡령과 기금의 불법적 사용에 대하여 상부 기관의 조사로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징계하도록 징계 범위까지 정해서 지시했음에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집행부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당치 않은 말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 사업에 찬동하는 이사, 대의원들이 출자하거나 대출을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기금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단체의 능력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 수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누구든 어떤 명목으로든 기금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그 제
안에 동의한 이어나 대의원은 “요례기”로 규정하여 실명을 들어 공개적으로 규탄
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둔다. 끝